

인명 경시 풍조,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 이슬로 정신질환 쉽게 치유된다

구세주의 성령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17명이 숨졌다. 14일 오후(현지시간) 3시 경 플로리다 주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이 학교 퇴학생 니콜라스 크루스(19)가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7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플로리다 총기난사범 정신질환자인듯

이번 학교 총기 참사는 올해 미국에서 18번째이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약 31만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총기규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며 개인의 잘못된 소행이라고 말할 뿐 총기규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플로리다 총기 난사의 범인 니콜라스 크루스(19)도 경찰 조사에서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수사관에게 "공격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머릿속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며 "그것은 악령의 목소리였다"고 진술했음을 미국 ABC 방송은 보도했다. 그가 극형을 피하기 위해 그런 진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17. 4.12.



플로리다 총기난사 이후 피해 학교 10대들이 총기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선비즈 2017.4.12. 참조). 즉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평생 자살을 한 번 정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마음을 잘 다스려 병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마음의 병이 된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우울증,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발전하고 망상에 의해 참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음의 병 다스리는 구세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도 실패가 오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팔 다리를 이용해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마음을 잘 써서 병이 된 경우에는 마음을 잘 써서 고쳐야 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은 망상과는 전혀 무관한 청정한 마음이며

평온한 상태의 마음이다.

그런데 특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잡념과 망상이 많고, 그 망상에 끌려다닌다. 자기에게 일어난 생각들이 자기의 진짜 마음(하나님이나 부처님 마음)이 아닌데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그 마음과 동일시하여 괴로워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할 경우에 자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길이 나서 자꾸 그 생각에 휩싸여 그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비판하여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남이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여 남을 죽이는 일까지 벌인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음, 예를 들면 불안, 초조, 망상 등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므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나?라고 반문할 것이다. 맞다. 그래서 강력한 영력(靈力)을 가지고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구세주는 이슬성인으로 모든 사탄 마귀를 없애버린다. - 1면 '손도 안 대고 정신병을 고친 구세주' 기사 참조.

한편 이번 플로리다 총기난사 사건으로 한국이 총기사고가 거의 없는 것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노컷뉴스 2.19 "총 없는 한국"...美 총기사고 계기로 한국 주목, 기사 참조). 아무쪼록 구세주 출현한 대한민국은 천손민족이며 복 받은 자손이다. 대한 사람 대 한으로 길이 보존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빛나는 우리들이다. 기뻐하고 감사하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8)
"황송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자라려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切感)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괴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을 펄펄 흘렸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마음자세인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으레껏 바라

봐도 좋은 걸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자세는 건방진 것이다. 그는 마귀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은 영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늘의 사람이 너무나 귀한 고로 사진만 바라봐도 감격하고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 가운데 황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 조금도 떳떳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인류역사 6천년의 화룡점정(畫龍點睛) 구세주 메시아, 극기승자 정도령 출현

중국 남북조 시대는 복잡한 정치 상황과 급변하는 사회 제도가 얽히고설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매우 혼돈의 시기였으나 도연명(陶淵明), 왕희지(王羲之), 장승요(張僧繇)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장승요는 양나라의 고위관리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림과 동시에 신의 경지에 이른 그림 실력을 가진 화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양나라의 수도 건강(健康)에 있는 안락사(安樂寺)의 주지가 그 절의 벽면에 용들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몇 번 거절하였으나 불교에 심취한 황제 양무제의 명령서를 받아와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되었다. 안락사에 도착한 장승요는 용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용들에 모두가 감탄하면서도 의아한 것이 있었다. 용들에게 눈동자가 없었던 것이다. 주지와 주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주위의 의구심에 장승요는 점안(點眼)하는 순간 용들이 승천할 것이고 그러면 그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다. 답답한 장승요는 마침내 용 한 마리의 눈에 점을 찍었다. 그러자 갑자기 벽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진동하며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버렸다. 하여, 화룡점정이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일을 완성시키고 그 원하는 꿈을 실현한다는 문구로 쓰이게 되었다.

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 사회 시스템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종교 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최고의 편리함과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인간성 상실과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 평화 공존동생의 화룡점정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국제기구들을 통해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동생(共存同生)할 수 있는 구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그 구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역시 평화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그림의 일부이다.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사명을 그리는 화룡점정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재앙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영생복락의 지상천국을 건설할, 인류역사 6천 년의 꿈을 완성할 마지막 한 점은 무엇일까?

인류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인간자 구세주 극기승자 정도령의 출현이다. 그리고 구세주 정도령을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과 마귀의 속성을 동시에 소유한 인간성의 비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요며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 화가와 붓과 물감이 함께하는 부활의 등용문,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안병천 승사 / 본부제단 기획부장

손도 안 대고 정신병 고친 구세주

2000년경에 제단에 입문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다. 구세주께서 7년 육고를 치르고 나오시기 직전에 나오신 분이요, 영락교회를 다니다 오셨는데 웃는 얼굴에 인상이 좋고, 교양이 있는 분이요.

그분은 6.25 전쟁 때 남편과 헤어진 후 아들 딸 둘을 홀로 키웠다. 험한 세상을 어린 자식들과 헤쳐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된다. 더욱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정신병에 걸렸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어느 날 정신분열증세가 와서 악을 먹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세주께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다. 구세주께서는 저를 부르시더니 가서 권사님 아들을 전도해 오라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절대로 강제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당시 나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중풍으

로 전신불수가 되어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니 시간을 안 낼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권사님 집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권사님과 돌이켜 찬송을 부르고 박멸소탕 기도하고, 아들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다.

일주일만에 한 번 권사님 집에 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권사님 집에 방문하였는데 권사님 말씀이 아들

모든 질병 죄로 말미암아 발생
죄만 없애면 어떤 병도 치유돼
구세주는 보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고쳐

권사님 집은 서울 퇴계로 국도극장 옆에 있었다. 권사님을 따라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2층에 있다고 하였다. 나는 심방 예배를 보기 위해서 권사님에게 아들을 부르라고 하였더니 아들은 안 내려오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많이 좋아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서너 번 방문한 후 아들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같이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권사님 집을 방문하니 아들이 주방에서 무엇인가

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끓이고 있었는데 권사님 말씀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면 나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구세주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제단에 같이 가자고 하였지만 그는 구세주가 무섭다고 하면서 오기를 꺼렸다. 특히 박멸소탕 기도가 무섭다고 하였다.

그렇게 대여섯 번 권사님 집을 방문한 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 같은 방에서 누군가에게 혼자서 묻고 말하고 대화하면서 떨떨 떨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 권사님은 아들이 정상인이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내가 봐도

▶2면으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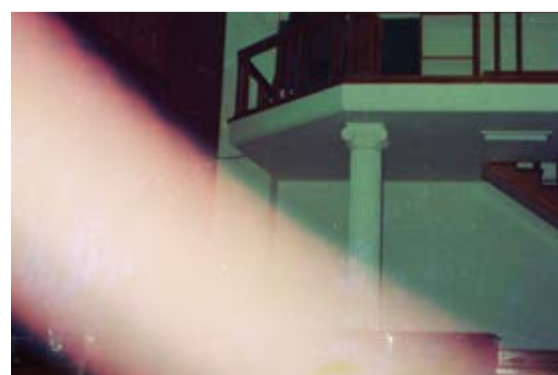
감로



본부제단에서 경축행사 연습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경축행사 연습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아래층 단상 앞으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